

‘자기서사’ 발견과 동일성 회복의 글쓰기: 최인호의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연구

- 문학치료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 덕 순*

차 례

- | | |
|--------------------------------|------------------------|
| I. 서론 | IV. 만화적 ‘작품서사’와 ‘서사지도’ |
| II. ‘자기서사’와 ‘서술적 정체성’ | V. 결론 |
| III. ‘자기서사’의 발견과 ‘작품서사’의
개입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문학치료학만의 독특한 개념인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개념을 인문학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문학치료학이 작품분석의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설화뿐만이 아니라 만화나 게임과 같은 서사 유형 또한 문학치료학의 ‘진단서사’로 유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인호의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에는 만화적/게임적 서사 구조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작품의 주인공이 만화적/게임적 서사를 ‘진단서사’로

*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서사’로 나아가는 과정이 작품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서사지도’ 개념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에서 ‘작품서사’로 기능하는 다양한 서사들, 즉 친구 H의 이야기, P교수의 이야기, <세일러문>과 <파워레인저> 이야기들은 모두 K에게 ‘진단서사’로도 기능한다. K는 소설의 전개 속에서 분절적 지점마다 이러한 ‘진단서사’를 접하면서 자신에게 내재된 ‘자기서사’와의 거리감을 표명하면서 그에 공감하거나 혹은 반감을 느낀다. H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고 P교수의 이야기에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일종의 서사지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이상을 발견하는 식이다. 여기서 K의 심리적 이상이란 주변의 인물들이 빅브라더의 명령에 의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일종의 망상증인데, 다양한 ‘작품서사’를 접하는 가운데 주변의 인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함으로써 K는 ‘완전한 나’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 기회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원’과 원형적으로 닿아있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품서사’로 등장했던 수많은 주변 인물들과 작별하고 K는 죽음, 혹은 재탄생을 맞이한다. 이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K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기서사’의 완결이자 새로운 ‘자기서사’로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주변 인물들의 등장은 ‘자기서사’의 경험적 재구성이며 이를 통해 K의 분열적 정체성은 경험을 통합하는 ‘서술적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문학치료학, 자기서사, 작품서사, 진단서사, 서사지도, 최인호,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I. 서론

최근 십여 년 사이 ‘문학치료’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정화하고자 하는 문학의 본원적 성격으로 인해 문학으로써 인간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쩌면 문학이 형성된 이후 계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문학치료학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정운채, 김석희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문학치료학회>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¹⁾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힐링’ 담론과 더불어 ‘문학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학치료학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문학치료학은 ‘치료’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실용학문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문학을 통한 치료라는 점에서 인간과 문학에 대한 이해를 기본 전제로 하는 인문학 영역에 속한 학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문학치료학의 흐름은 구체적인 치료 모형을 모색하고 심리 진단의 문항을 설정하는 등 도식적 체계화를 통한 ‘치료’ 목적에의 도달에 더 치중하고 있는 편이다. 이는 문학연구와 심리치료의 사이에서 문학치료학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필수불가결한 단계일 것이다. 하지만 문학치료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이들은 대부분 ‘카타르시스’ 효과와 같은 문학 일반의 위로와 감동의 기능에 더 주목하는 편이어서 막상 이론을 접하게 되면 그 낙

1) 김정에는 ‘문학치료학’의 시작을 “1999년 정운채의 「시화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치료학을 위한 전망,」이라고 보았다. (『문학치료학의 ‘서사’ 개념의 정립 과정과 적용 양상, 『문학치료연구』Vol.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9-33쪽) 김석희의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문학치료연구』Vol.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7-30쪽)에는 문학치료학회 태동부터의 활동 및 학문적 전개 상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정운채가 문학치료학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 분야의 시작과 전개를 한 사람의 연구자 중심으로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문학치료학 분야에서는 정운채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논문에서도 정운채의 논문을 중심으로 문학치료학의 개념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를 극복하지 못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많은 가능성과 매력을 지닌 문학치료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문학치료학만의 독특한 개념인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개념을 인문학적 맥락에서 보완함으로써 문학치료학이 작품분석의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문학치료학의 성립 초기에는 상담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 인접학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의학적 치료와 문학치료의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문학작품의 ‘서사’를 통해 ‘치료’를 모색한다는 점이다.²⁾ 일반적 의미의 ‘카타르시스’와 구별되면서 정신의학적 치료와도 구분되는 문학치료 이론 및 치료 모형은 역시나 서사이론을 토대로 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운채가 심리치료의 아홉 가지 접근법과 비교하면서 문학치료학의 특징으로 정리한 것이 주로 ‘자기서사의 탐색, 자기서사의 변화, 치료자의 자기서사와 치료대상자의 자기서사와의 접촉, 자각과 통합의 방법으로 자기서사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점’ 등인 것은 문학치료학의 핵심 개념이자 특징이 바로 ‘자기서사’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³⁾ 이에 이 논문은 문학치료학

2) 관련 대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정애, 위의 글

범효준, 「‘작품서사’개념의 분화, 확대와 오용 양상」, 『문학치료연구』 Vol.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83-107쪽.

이명희, 「만담의 서사적 특성과 치료적 효용」, 『문학치료연구』 Vol.1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95-125쪽.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Vol.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년, 247-278쪽.

, 「리몬케닌의 서사이론과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Vol.1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73-289쪽.

,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Vol.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33-252쪽.

,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Vol.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95-226쪽.

3)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

의 핵심이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와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고 리피르의 서사이론을 도입하여 문학치료학의 이론적 토대를 풍부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문학치료학의 ‘서사지도(敍事地圖)’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사지도란 “서사와 서사끼리의 상호 관련이 마치 지역과 지역끼리의 상호 관련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서⁴⁾ 정운채의 논문에서는 주로 설화의 서사 영역에서 ‘진단서사’를 추출하고 그 진단서사와 자기서사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함으로써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수준이 어떠한가를 진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⁵⁾ 즉 이른바 ‘건강한 서사’⁶⁾를 진단서사로 활용할 경우 피검자가 진단서사에 대해 저항 없이 잘 따라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심리적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으며 피검자의 ‘자기서사’를 가늠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밀한 ‘서사지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서사를 유형화하고 또 각 유형에 따라서 서사의 분절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문학치료학에서 활용하는 ‘작품서사’, 그 중에서도 ‘진단서사’가 주로 설화인 것은 신화나 설화와 같은 전형적인 서사가 유형화와 분절화에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설화뿐만이 아니라 만화나 게임과 같은 서사 유형 또한 문학치료학의 ‘진단서사’로 유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에는 만화적/게임적 서사 구조가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작품의 주인공이 만화적/게임적 서사를 ‘진단서사’로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학치료연구』 Vol.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 361-381쪽.

4)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고전문학과 교육』 Vol.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9쪽 각주 12.

5) 위의 글, 129쪽

6) 정운채는 인간관계의 주체 곧 서사의 주체가 궁극적인 성공에 이르고 있는 서사를 ‘건강한 서사’라고 본다.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12.31., 361-397쪽)

서사'로 나아가는 과정이 작품의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 '서사지도' 개념을 활용하여 작품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분석 텍스트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설화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애니메이션도 '진단서사'로 활용될 여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자기서사'와 '서술적 정체성'

문학치료학에서 초기부터 '서사' 개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⁷⁾ 하지만 '문학'을 통해 치료에 접근한다는 것이 문학치료학의 기본 관점이라면, 태생적으로 '서사'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본다. 정운채가 <무왕 설화>, <하생기우전>, <홍보가>, <춘향가>, <심청가> 등 일련의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도출해낸 '서사'는 시대적 변화가 거듭 되면서도 계속해서 출현하는 동일한 구조와 모티프로서, 장르적인 구분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인간의 갈등 관계와 욕망 전개 of 양상을 가리키는 개념의 용어라 할 것이다. 이 용어가 문학치료학과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었던 토대에는 정신분석학적 접근법이 있다. 과거의 억압된 기억을 일깨우고 그 기억이 주체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서사적 진리'를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은, 정신분석학적 치료의 과정을 그대로 닮아있다. 이와 같이 「시교설의 문학치료학적 해석」⁸⁾에 사용되는 '서사적 진리'라는 용어는 작품을 읽는 독자의 기억과 작품에 내재된 서사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7) 문학치료학의 시작은 '문학치료'라는 용어가 사용된 시점인 1999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문학치료의 바탕과 토대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엔 '서사'라는 용어도 사용되지 않았거니와 '치료'라는 적극적인 표현도 없었다. —김정애, 위의 글, 10쪽.

8) 정운채, 「<시교설(詩敎說)>의 문학치료학적 해석」, 『국어교육』No.10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 347-371쪽.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 열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주역』의 인간 해석 체계와 비교하면서 문학치료의 ‘서사’ 개념이 좀 더 체계화되기에 이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에서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우리들 각자의 ‘자기서사’라고 한다면, 이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학작품의 서사는 ‘작품서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치료란 결국 문학작품의 작품서사를 통하여 환자의 자기서사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개념을 규정짓게 된다.⁹⁾

이후 문학치료학 연구의 전개는 ‘자기서사’와 ‘작품서사’ 개념의 적용 및 치료 모형의 개발에 집중되어왔다. ‘치료’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서사 개념을 특히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대한 서술”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모든 서사의 기초가 되는 기초서사의 영역을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라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그 각각을 “가르기, 밀치기, 되찾기, 감싸기”의 4수준과 ‘순응, 선택, 지속, 양육’이라는 기초서사척도로 나누는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문학치료학의 목적이 ‘치료’라는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그에 맞는 도식화된 모형 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도된 것으로써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4개의 서사영역과 4개의 기초서사척도가 모든 서사를 포괄하지는 못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치료라는 목적에 정당하게 부합하는 지도 의문이다. 초기의 ‘서사적 진리’라는 열린 개념이나 ‘자기서사’와 ‘작품 서사’라는 유동적인 개념에 비해 상당히 도식화되고 도구화되고 있어 그러한 도식화를 피하면서도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할 단계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치료’라는 현실적인 목적 외에 인간과 문학에 대한 이

9) 정운채,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71쪽.

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인문학적 방법론으로의 길도 모색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리코르의 서사이론을 통해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개념을 보완함으로써 문학치료학 이론의 폭을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해보고자 한다. 리코르가 『시간과 이야기』에서 제시하는 ‘서술적 정체성(identité narrative)’은 인간이 유한한 시간성 위에 걸쳐 존재하면서 매 시간 시간의 새로운 경험을 자기 동일성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서사 기능의 구조적 동일성은 물론 모든 서사 작품들의 진리 주장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인간의 경험이 갖는 시간적 특성이라는 것”¹⁰⁾이라는 언급은 곧,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그 위에 아로새기는 경험이 통합적으로 인간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사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시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경험은 서사화 될 수 있고, 서사화 된 경험은 분열적이고 다면적인 한 존재에 ‘서술적 정체성’이라는 자기 동일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형성된 자기 동일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서술적 정체성’ 개념은 문학치료학의 ‘자기 서사’ 개념과 여러 가지로 접속될 수 있다. 이를 정운채가 상담과 심리치료의 아홉 가지 접근법과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을 비교한 항목과 관련하여¹¹⁾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층적인 자기서사는 성격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 동기와 함께 의식적 동기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는데 ‘서술적 정체성’ 또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형성함에 있어

10) Paul Ricoeur,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25쪽.

11)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Vol.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 365-366쪽. 이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의 항목에서 “ ” 부분은 정운채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체의 의식적 무의식적 동기가 모두 작용하고 있어 자기서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존적 접근법과 비교하여 “인간조건들이 심층적인 자기서사에 의하여 결정되며, ‘자기서사’가 변화하면 그러한 인간조건들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리콥르의 이론 또한 ‘나는 무엇인가’와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인간조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며¹²⁾ 그러한 질문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 발현되는 이야기가 바로 ‘서술적 정체성’인 것이다.

셋째, “문학치료사의 자기서사가 치료대상자의 자기서사에 얼마나 잘 접촉할 수 있는지가 문학치료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리콥르의 서술적 정체성 개념은 해석학적 개념으로서 늘 자신의 시간, 그와 떼어 수 없이 더불어 있는 경험을 해석하려는 행위 속에서 ‘자기서사’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문학치료사와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경험과 그 의미를 치료대상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행위 속에서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치료학적 ‘자기서사’ 개념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형태치료법이 경험과 감정의 자각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자각의 방법이나 통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직관적이거나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은 자각과 통합의 방법으로 ‘자기서사’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는데,

12) 일반적으로 철학적 논의에서 인격의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란 개인의 동일성을 가리키며, 시간적 변화와 지속에서도 동일하게 ‘나’로 남아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여기에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실체로서는 생물학적 종이 지닌 ‘유전자 코드’나 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질의 총체로서의 성격의 지속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리콥르는 인격의 정체성의 문제를 시간 속에서 불변의 본질을 찾는 물음인 “나는 무엇인가”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나의 나뉘를 묻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간성 속에서의 자기 해석의 차원을 포함시킨다. —공병혜, 『리콥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24, 한국현상학회, 2005년, 62쪽

이 부분에서는 다소 ‘자기서사’가 고정된 실체인 것으로 잘못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자기서사’가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경험과 감정이 말미암게 되며 그것의 자각과 통합 과정이 다시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로써 이후 다소 도식화된 치료모형이 산출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기서사’ 개념에 ‘서술적 정체성’ 개념이 활용됨으로써 좀 더 통합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자기서사가 시작으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시물레이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치료대상자가 어떠한 인생의 방향이나 운명을 상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문학치료학의 접근법이 가진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다. ‘시물레이션’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자기서사’는 실제의 경험 그 자체라기보다는 경험의 구성 능력에 가깝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대타자의 무의식적 영향력, 의식적 각성 상태 등에 따라 같은 경험에도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합하여 이야기 화함으로써 자기만의 ‘서술적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서사’ 개념은 ‘서술적 정체성’ 개념과 소통의 여지가 상당하며 ‘시물레이션’ 개념을 활용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사지도’ 개념과 더불어 현대의 만화, 게임 서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문학치료학에서의 ‘치료’는 결국 ‘자기서사’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기서사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공명, 공감, 감동을 필요로 한다.”¹³⁾ 즉 치료 대상자의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소통에서 상호 간의 “공명, 공감,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대사회의 ‘작품서사’ 중 ‘자기서사’와의 “공명, 공감, 감동”의 기능을 만화 혹은 게임만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서사 장르는 없다고 본다.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는 만화적/게임적 서사를 ‘작품서사’로 활용하여 ‘자기서사’의 변화

13) 정운채, 앞의 글, 376쪽.

를 이끌면서 그것을 인문학적 문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다음의 3, 4장에서 이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만화적/게임적 서사가 어떻게 ‘작품서사’(진단서사)로 활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여기서의 작품 분석이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라는 최인호의 작품을 ‘작품서사’로 활용하여 그것을 읽는 독자의 ‘자기서사’를 유도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인호의 작품 안에서 전개되는 서사 자체가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소통을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K가 ‘자기서사’를 발견하고 ‘치유’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는 점에 주목하여 문학치료학적 개념을 통해 작품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로써 문학치료학적 관점이 문학작품 분석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문학 치료학에서 치료대상자는 독자이지만 문학치료학적 관점을 통한 작품 분석이 한 방법론으로 정립된다면 주인공, 나아가 글쓰는 행위 당사자의 치료의 과정을 추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독자의 치료와의 접점을 보다 정밀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Ⅲ. ‘자기서사’의 발견과 ‘작품서사’의 개념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¹⁴⁾는 분열된 K1과 K2가 합체되어 완전한 ‘나’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는 나의 고유성을 잃어버린 채, 혹은 깨닫지 못한 채 다양한 조직체의 조직원으로서 다기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대인이, 그 분열적 정체성을 넘어 자기동일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빅 브라더가 감시하고 있으며 어디엔가 또 다른 ‘나’가 있을지 모른다는 ‘망

14) 최인호,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여백, 2011. 이하 책에서 인용한 문장은 “ ”안에 넣고 괄호 안에 숫자로 페이지만을 병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상증'을 치유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즉 '망상증'을 치유하기 위한 '자기서사' 찾기의 과정으로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K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지 않는 이성적 인간으로서 “크레파스 통 속에 들어 있는 열두 가지 빛깔의 색채와는 관계없는 무채색의 인간”(166)으로 표현된다. 이는 K의 본래적 기질일 수도 있지만 ‘모지(母地)’(126)를 잃어버린, 기원에 대한 향수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전형적 성격이기도 하다.¹⁵⁾ 즉 문학치료학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서사’를 잃어버린, 각종 정신병리학적 증상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표상일 수 있다. 자신의 원형(모지)을 기억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의 호오를 느끼기 마련이며 그로 인한 자신만의 ‘색채’를 갖는 것이 자연스럽다.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1부에는 K가 무의식적 장소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서사’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1부에서 K가 거쳐 가는 장소는 ‘집-야누스(케이 바)-결혼식장-카페-영화관-H의 병원-술집-집’으로 이어지는데, 각각에는 무의식적 장소를 연상시키는 지하의 공간이 있고 모든 공간에는 예외 없이 성적 욕망이 분출되고 있다. 지하에 위치한 ‘야누스’는 동성애적 욕망의 공간이며 결혼식장의 지하 주차장에는 카섹스를 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 분실한 핸드폰을 되돌려 받기 위해 찾아간 카페에서는 노골적인 유혹의 몸짓과 마주하는 한편 자신의 핸드폰에 “낮 뜨거운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무채색의 인간” K에게 원색적인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1부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영화관에서는, 자신이 웃었던 기억과 울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잊고 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감정’

15) K는 자신을 ‘사생아’라고 말한다.(124) 기원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기원을 상실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새삼 깨어남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정신과 의사인 친구 H의 병원이라는 점은 1부의 서사가 K의 무의식적 욕망을 탐사하는 정신분석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의 ‘자기서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무의식적 욕망의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욕망은 낯익은 타인들의 것, 혹은 낯선 친숙함(unheimlich)¹⁶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신체에서 배설된 피, 농, 배설물을 자신의 것(친숙한 것)이 아닌 기괴하고 낯선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신의 욕망을 추악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낯설게 느끼는 정신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영화관에서 보게 되는 영화가 <눈먼 자들의 도시>이며 이 작품의 제목이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인 점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작품에 기대어 해석하자면, ‘눈먼 자’라는 비유는 눈에 보이는 타자의 형상을 보면서 그 속에 투영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나’로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낯익은 타인들’이란 자신과 닮은, 인간으로서 동일한 욕망을 공유하는 타인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형상임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타자라 규정짓는 ‘나’로 볼 수 있다.

K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었던 낯익은 인물에게서 느낀 낯선 이질감에서 기인한 조화에 대한 부조화, 질서에 대한 무질서, 코스모스에 대한 카오스, 이중성에 대한 이율배반과 같은 혼돈 그 자체였던 것이다.(166-167)

따라서 1부의 서사는 무의식적 장소를 탐사하며 ‘자기서사’를 어렵듯이 짐작하긴 하지만 아직 그 실체는 드러내지 못하는 지점, 다시 집으로

16)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하는 ‘unheimlich’(기괴한, 섬뜩한) 개념은 친숙함을 의미하는 heimlich가 unheimlich로 전환되어 버리는 기묘한 현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 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141쪽 참고) 크리스테바는 친숙한 자기 안의 물질(피, 농, 배설물 등)이 이질적인 것으로 역전되는 현상을 unheimlich 개념을 빌어와 사용한다.

돌아와 하루를 마감하는 데에 이르러 마무리된다. K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까지 ‘낮익은 타인들’로 바라보면서 이질감에 시달린다. 2부에서도 K의 정신적 방어기제(이질감, 저항감)는 지속되지만 ‘자기서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작품서사’가 제시되고 그에 영향을 받는 K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1부의 후반부에 제시된 정신과 의사 H의 처방 중 ‘생체 실험’이 실패하자 “가족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실행해보는 과정이 2부의 서사가 된다.

2부에서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 혹은 ‘작품서사’라 볼 수 있는 부분은 카페 ‘에옹’에서 만난 한 때 매형이었던 P교수에 대한 이야기이다. P교수는 남성으로서 K의 누이와도 결혼한 바 있고 현재도 아내와 아이를 두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 ‘에옹’에 들러 여장남자가 되는 취미가 있는 독특한 사람이다. 40대 중반 이후 자기 안의 여성성을 발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장남자가 되지 않으면 일종의 심리적 공황 상태까지 겪는 P교수는 “남자이자 여자인 제3의 인물이야 말로 인간의 원형이며, 미래에 있어서도 가장 진화된 호모루덴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P의 이야기는 K에게 자기 안의 ‘다른’ 존재에 대한 암시를 주는 ‘작품서사’로 기능한다. 1부에서 K가 만났던 인물들, 즉 게이 바의 종업원이나 나비 문신을 한 여인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 비해 P교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감정을 보임으로써 P의 서사가 K의 서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불륜을 의심하며 자신 또한 불륜을 저지르는 H의 이야기는 K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서사로 작용하기 보다는 ‘나는 H와 다르다’는 구별과 반감의 서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P교수의 이야기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 하나의 ‘작품서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워레인저> 이야기이다. “<파워레인저>는 싸우는 전사들인 전대물(戰隊物) 시리즈의

영어식 제목”(322쪽)으로 K가 어린 시절 즐겨보던 애니메이션이다. “평소에는 레드, 블루, 핑크처럼 각자 활동하다가 악당을 물리칠 때는 하나의 몸으로 합체해 로봇이 되는” 이 이야기는 K에게 자신의 분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수 있으며 그 분신과의 합체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주는 ‘작품서사’로 기능한다.

“자네와 나는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지. <파워레인저>의 전사들이 합체하면 악당을 물리치는 하나의 로봇이 되었어. 기억나냐.”

(…)

“우린 언제 합체가 되어 자네는 내가 되고, 나는 자네가 되어 하나의 ‘나’가 될까.”(333-334)

자기 안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속적인 암시는 마침내 자신의 복제인간, 혹은 도플갱어와 같은 존재를 만나는 실제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파워레인저>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K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된 상황을 <파워레인저>에 빗대어 설명하고 이는 다양한 ‘작품서사’와의 만남을 통해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자기서사’에 변화를 주면서 점차 자기동일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K와 K의 분신, 즉 K1과 K2가 ‘합체’되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의 결말이다.

IV. 만화적 ‘작품서사’와 ‘서사지도’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는 ‘POWER ON’으로 시작하여 ‘POWER OFF’로 끝난다. 빅브라더, 복제인간 등에 관한 K의 계속되는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로봇과도 같은 한 존재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 투입되었다가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작동을 멈추는 한 편

의 만화적/게임적 서사를 떠올리게 한다. 기억이 삭제된(혹은 기억으로 서의 ‘자기서사’를 망각하고 있는) 존재가 ‘POWER ON’되어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적응해가면서 점차 ‘자기서사’를 깨닫게 되고(고유한 존재감) 그러한 ‘자기서사’가 제시하는 자신의 역할/기능(임무)을 수행하고 ‘POWER OFF’되는 서사적 흐름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이 만화적/게임적 서사의 흐름을 지니게 된 것은 현대의 인간을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가상의 창조자 빅브라더에 의해 조종당하는 하나의 캐릭터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무채색의 인간 K”가 다선형의 인생 모듈이 제시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서 게임 속 캐릭터의 임무를 완수하게 되는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세일러문>과 <파워레인저> 이야기가 작품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작품 자체가 만화적/게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인물. 이 모든 게임을 총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아직 K가 즐겨 애용하는 스킨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것이다. 빅브라더는 K의 DNA같은 중요한 정보는 확보하였으나 취향 같은 사소한 부분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86)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대부분의 기차가 정해진 시각에 맞추어 도착하고 떠난다. 이것은 공공질서이며 계획된 약속이다. K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도 미리 치밀하게 조작된 컴퓨터처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떠오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K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가 떠나는 인간열차이자 기계인간인 것일까.(250)

세일러문은 인간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고무인형이자 리얼돌이었다.(272)

앞에서 <파워레인저> 이야기가 이 소설의 ‘작품서사’로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듯이 <세일러문> 이야기 또한 K의 ‘자기서사’

와 소통하는 ‘작품서사’로 기능하고 있다. K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났던 누이에게 근친상간적 욕망을 느끼고 역삼동 성인방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상대가 세일러문을 코스튬 플레이한 소녀이다. 그녀는 K를 “하얀 장미의 기사 레온”이라 부르며 함께 “생명의 나무”를 지키자고 말한다. “생명의 나무는 지구인을 지키는 나무인데, 악당 앤과 앨런이 그것을 죽이려 해여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구인들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만이 생명의 나무를 구할 수 있어어.”(266) 그런데 악당 앤과 앨런이 등장하는 ‘세일러문R’ 편은 전사로서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평범한 소녀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 다시 전개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기억의 혼란 속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작품의 전반부와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기억이 지워진 상태에서 ‘POWER ON’되어 전사로서의 기억을 되찾고 지구를 구하는 전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이야기 전개는 소설의 후반부와 그 구조가 동일하다. 소설의 엔딩은 지구를 구할 ‘마법의 봉’을 지키려는 ‘세일러문’ 소녀의 손에 K1과 K2의 손이 합체되는 장면이다.

K는 세일러문의 손을 놓고 탈출할 수 없었다. K는 시뮬레이션 연극의 엔드 마크end mark가 다가올 때임을 깨달았다.

K는 더욱더 강하게 세일러문의 손을 쥐었다.

기진하여 더 이상 체력이 없던 손에 갑자기 강한 힘이 더해졌다.

K는 자신의 손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 찰나의 순간, K의 손에 누군가의 손이 합체되었다. K는 그 손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K1, 바로 레인저의 손이었다. 레인저는 K2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하나의 ‘나’로 합체하였다.

나는 곧 ‘나’가 되었으며, K1과 K2는 합체하여 온전한 하나의 ‘K’가 되었다. 온전한 K는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의 알파, K를 낳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들이 태어나기 전의 태초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맨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

지 않았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오직 말씀만이 존재하던 카오스의 신세기이자, 오메가의 천국이었다.(377-378)

이러한 결말은 분열된 정세성의 K가 ‘합체’를 통해 “온전한 하나의 K”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신병리학적으로 보면 분열적 주체가 동일한 주체로 회복되는 ‘치유/치료’의 서사로 완결되고 있는 것이며, 모지로부터 떨어져 고유한 존재감을 상실한 채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만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이 ‘기원’으로 회귀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기원으로의 회귀, 자기동일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는 사실 문학이 존재해온 이래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것으로서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 과정을 만화적/게임적인 전개로 펼쳐 보여주었다는 점이 이 작품만의 개성이라 할 수 있다.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에서 ‘작품서사’로 기능하는 다양한 서사들, 즉 친구 H의 이야기, P교수의 이야기, <세일러문>과 <파워레인저> 이야기들은 모두 K에게 ‘진단서사’로도 기능한다. K는 소설의 전개 속에서 분절적 지점마다 이러한 ‘진단서사’를 접하면서 자신에게 내재된 ‘자기서사’와의 거리감을 표명하면서 그에 공감하거나 혹은 반감을 느낀다. H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고 P교수의 이야기에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일종의 서사지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이상을 발견하는 식이다. 여기서 K의 심리적 이상이란 주변의 인물들이 빅브라더의 명령에 의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일종의 망상증인데, 다양한 ‘작품서사’를 접하는 가운데 주변의 인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가상현실에서 바뀐 사람은 다름 아닌 K다.

K 본인이 가짜이며, 짝퉁이며, 복제인간이자, 추적자이며, 위조인간이다. 이러한 기현상은 다름 아닌 K의 탓이고, K의 탓이며, K의 큰 탓 때

문인 것이다.(…)(296)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발견함으로써 K는 ‘완전한 나’를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 기회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원’과 원형적으로 닿아있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간에 걸쳐 출연한 모든 배우들과 어린 시절의 영상이 총망라되어 등장한 화려했던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맞추어 커튼콜을 하고 작별 인사를 올리기 위한 피날레 무대인사”로써, ‘작품서사’로 등장했던 수많은 주변 인물들과 작별하고 K는 죽음, 혹은 재탄생을 맞이한다. 이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K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던 ‘자기서사’의 완결이자 새로운 ‘자기서사’로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주변 인물들의 등장은 ‘자기서사’의 경험적 재구성이며 이를 통해 K의 분열적 정체성은 경험을 통합하는 ‘서술적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V. 결론

이 논문은 문학치료학만의 독특한 개념인 ‘자기서사’와 ‘작품서사’의 개념을 인문학적 맥락에서 보완하고 이를 최인호의 마지막 작품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에 적용, 분석함으로써 작품분석의 방법론으로 활용해보았다. 이 작품을 ‘작품서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안의 서사에서 ‘자기서사’와 ‘작품서사’가 소통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작품 안의 ‘작품서사’가 주인공 K의 ‘진단서사’로 기능하면서 K의 ‘서술적 정체성’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작품 안에서 ‘진단서사’로 기능하는 서사는 <세일러문>과 <파워레인저> 이야기로서 애니메이션이 진단서사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가늠해볼 수 있었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진단서사’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이상 상태를 점검해보고 다양한 ‘작

품서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기서사'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에 도달하게 되는데, 만화적/게임적 서사는 분절화와 유형화가 용이하고 대중적이기 때문에 '작품서사', 특히 '진단서사'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에서 주인공 K는 '무의식적 장소'라는 상징성을 띠는 공간을 이동해가면서 주변 인물들과 만나며 '작품서사'와 소통하고 '자기서사'를 발견하며 궁극에는 '자기서사'의 변화에 이른다. 이 작품에서 '자기서사'의 변화란 빅 브라더가 주변 인물을 조종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망상증에서 벗어나 자신의 복수적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을 회복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동일성의 회복은 기억과 경험을 이야기로 엮음으로써 통합적인 '서술적 정체성'의 구성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통합성, 자기동일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서술적 정체성' 개념은 유동적이고 구성적인 개념으로서 반드시 통합적 자기동일성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문학치료학의 기본 관점이자 『낮익은 타인들이 도시』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앞으로 더 정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 이러한 문제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서사'와 '서술적 정체성' 개념의 접목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를 작품 분석에까지 깊이 활용하지 못한 점 또한 보완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개념 접목의 첫 시도가 갖는 한계로서 이후의 분석에서 더 정치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최인호, 『낮익은 타인들의 도시』, 여백, 2011.

논문 및 단행본

공병혜, 「리콤피르의 이야기적 정체성과 생명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24, 한국현상학회, 2005년, 61-89쪽

김정애, 「문학치료학의 '서사' 개념의 정립 과정과 적용 양상」, 『문학치료연구』 Vol.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9-33쪽

김석희, 「문학치료학의 전개와 진로」, 『문학치료연구』 Vol.1, 한국문학치료학회, 2004, 17-30쪽

범효춘, 「'작품서사' 개념의 분화, 확대와 오용 양상」, 『문학치료연구』 Vol.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83-107쪽.

이명희, 「만담의 서사적 특성과 치료적 효용」, 『문학치료연구』 Vol.1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년, 95-125쪽.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Vol.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년, 247-278쪽.

_____, 「리몬케넨의 서사이론과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Vol.1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73-289쪽.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Vol.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년, 233-252쪽.

_____,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Vol.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년, 195-226쪽.

_____,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Vol.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 361-381쪽.

- _____,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고전문학과 교육』 Vol.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5-160쪽
- _____,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12.31., 361-397쪽
- _____, 「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59-176쪽.
- _____, 「자기서사의 변화 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Vol.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0, 361-181쪽.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 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 Paul Ricoeur,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1』, 문학과지성사, 1999.

KYOB O
교보문고

<Abstract>

Writing of ‘Epic of Self’ Discovery: Study on
Choi Inho’s 『Familiar Others’ City』
- Centering around literary therapeutic viewpoints -

Seo, Duk-Soon

This paper was intended to find a possibility as to whether literary therapy can be utilized as methodology of literary work analysis by reinterpreting a concept of ‘epic of self’ and ‘epic of literary work’, a peculiar concept only in literary therapy, from humanistic context. Also, this paper proposes a viewpoint that a narrative type such as a cartoon or game as well as a folktale can be utilized as ‘diagnosis epic’ in literary therapy. In Choi Inho’s 『Familiar Others’ City』, cartoon/game-style epic structure is positively utilized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comprise of the process in which main characters discover ‘epic of self’ by using cartoon/game-style epic as ‘diagnosis epic’ and, through this, proceed into ‘healthy epic’, so that this is convenient to analyze by utilizing a concept of ‘epic map’.

In 『Familiar Others’ City』, various epics which function as ‘epic of literary work’, that is, all of a story of friend H, a story of professor P, stories of <Sailormun> and <Power ranger>, etc. function to K as ‘epic of literary work’. K, as he contacts such ‘diagnostic epic’ at every segmental point through development of a novel, expressing a sense of distance from ‘epic of self’ inherent in self, sympathizes with or feels hostility to it. Feeling hostility toward H’s story and

recognizing professor P's story as it is, he forms a kind of epic map and finds his psychological ideal in it. Where, K's psychological ideal is a kind of reticulosis that persons around him deceives self by order of Big Brothers, in the midst of contacting a variety of 'epics of literary work', he gets to realize that it is not persons around him but the very himself who was wrong. By discovering causes of problems from self, K gets to have an opportunity to be able to recover 'complete self'. The opportunity, as examined before, means a reversion to the origin, and also means 'death' connected to 'the origin' circularly. Departing from lots of persons who appeared as 'epic of literary work', K greets death or re-birth. Though not realized, this can be completion of 'epic of self' inherent in the self of K and a turning point of new 'epic of self'. Appearance of lots of surrounding figures is experiential re-composition of 'epic of self' and, through this, the segmental identity of K is able to proceed to 'identité narrative' of integrating experiences.

Key Words : literary therapeutic, Epic of Self, epic of literary work, diagnosis epic, epic map, Choi Inho, 『Familiar Others' City』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6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